

2015 / 06 / 16 (TUE)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소폭 하락.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재부각되며 투심 위축. 게임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약세.

수급측면에서는 외인의 매수세로 NAVER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이오테크닉스, NHN엔터, 다음카카오, 삼성SDS 약세.

종목별로는 실적부진 전망과 과도한 기대감에 대한 우려로 이오테크닉스가 17.5% 급락세.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99.27	-0.1%	-6.3%	941 억	-587 억
KRX Semicon	1,914.11	-1.8%	2.0%	198 억	-222 억
(코) 반도체	988.79	-1.1%	24.0%	17 억	28 억
(코) IT H/W	405.26	-0.9%	16.3%	29 억	7 억
(코) IT S/W	2,160.28	-2.3%	8.1%	-82 억	-52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70,000	-0.5%	-4.3%	316 억	-185 억
LG전자	51,700	-0.4%	-12.5%	46 억	-21 억
삼성SDI	113,000	-0.4%	-2.6%	62 억	-66 억
삼성테크윈	34,250	0.3%	43.6%	7 억	25 억
서울반도체	15,600	0.0%	-22.8%	-2 억	0 억
신도리코	68,100	1.0%	0.4%	-1 억	2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6,150	-0.9%	-3.4%	-124 억	-37 억
이오테크닉스	84,200	-17.5%	-32.8%	30 억	-43 억
월익IPS	14,050	-3.1%	0.7%	-6 억	6 억
리노공업	49,500	1.3%	29.2%	-7 억	7 억
유진테크	17,400	-3.1%	7.7%	-11 억	6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63,000	-2.4%	-10.4%	7 억	-32 억
SK C&C	266,000	-0.2%	24.6%	-36 억	44 억
포스코 ICT	5,130	1.4%	-3.2%	-2 억	1 억
다우기술	17,050	2.4%	42.7%	6 억	3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27,000	4.3%	-11.9%	646 억	-314 억
다음카카오	105,600	-4.7%	-14.6%	-86 억	-60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7,200	1.7%	-19.2%	80 억	-41 억
에스에프에이	48,800	0.0%	-1.7%	-4 억	12 억
솔브레인	47,100	-2.8%	46.5%	-2 억	0 억
덕산하이메탈	8,290	-4.5%	-25.7%	1 억	1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5,600	0.2%	1.6%	12 억	-9 억
LG이노텍	104,000	0.5%	-7.6%	-29 억	79 억
파트론	8,600	-0.8%	-26.8%	-10 억	3 억
루멘스	4,600	-2.0%	-34.8%	-1 억	0 억
일진디스플레이	9,420	1.6%	38.1%	-2 억	9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88,000	-1.3%	3.3%	25 억	-21 억
컴투스	124,500	-1.7%	-6.6%	1 억	1 억
NHN엔터테인먼트	54,300	-4.7%	-37.9%	7 억	-18 억
게임빌	88,100	-3.0%	-27.0%	24 억	-6 억
위메이드	38,050	-5.5%	0.7%	-3 억	-4 억
선데이토즈	16,200	-8.5%	-5.8%	6 억	-12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45,200	0.0%	475.0%	-4 억	15 억
한글과컴퓨터	18,650	1.4%	-7.7%	-3 억	8 억
코나아이	31,350	-3.7%	-7.0%	0 억	-6 억
슈프리카	20,050	-1.5%	-21.2%	2 억	0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1.58	-0.7%	3.1%
MSCI Internet	158.80	-0.8%	4.0%
MSCI Software	168.90	-1.1%	3.2%
MSCI Semicon	218.95	-0.3%	-0.6%
MSCI IT Services	123.63	-0.7%	5.0%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43.00	-0.8%	2.3%
Facebook	80.71	-1.0%	3.4%
Tencent	155.20	-1.3%	38.0%
Baidu	205.73	-0.9%	-9.8%
Yahoo	40.47	-0.1%	-19.9%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5.48	-1.1%	-2.1%
Oracle	43.72	-1.4%	-2.8%
SAP	72.47	-1.5%	4.0%
EMC	26.94	-0.5%	-9.4%
Symantec	23.45	-1.3%	-8.6%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6.92	-0.2%	15.0%
Nokia	7.01	-1.7%	-10.8%
Lenovo	11.16	-2.3%	9.4%
ZTE	21.35	-4.0%	26.8%
HTC	83.6	10.0%	-41.1%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39	0.2%	-13.5%
Qualcomm	66.63	-0.6%	-10.4%
Texas Instruments	53.05	0.1%	-0.8%
Micron	24.24	-3.5%	-30.8%
Toshiba	445	1.6%	-13.2%
Renesas	926	-1.3%	12.5%
STMicro	8.14	-1.1%	9.0%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6.26	-0.4%	3.6%
HP	31.71	-2.2%	-21.0%
Accenture	95.79	-0.3%	7.3%
Fujitsu	733	0.4%	13.8%
NTT Data	5,440	-0.4%	20.5%
CSC	66.20	-2.3%	5.0%

Hardware

	close	1D	YTD
GE	27.21	-0.7%	7.7%
Panasonic	1,760	-0.7%	23.3%
SONY	3,816	0.8%	54.3%
Whirlpool	184.01	-1.1%	-5.0%
Electrolux	257.70	-1.5%	12.6%
Haier	21.95	0.0%	18.9%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0,010	0.5%	51.0%
KYOCERA	6,522	-0.9%	17.4%
Nidec	9,229	1.4%	17.6%
TDK	9,980	-1.8%	39.4%
Ibiden	2,152	-2.1%	20.4%

Display

	close	1D	YTD
Sharp	170	0.0%	-36.6%
Japan Display	555	1.6%	50.0%
AUO	4.61	-0.4%	-9.4%
Innolux	16.25	0.9%	5.5%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646 억	SK하이닉스	-124 억
삼성전자	316 억	다음카카오	-86 억
LG디스플레이	80 억	SK C&C	-36 억
삼성SDI	62 억	LG이노텍	-29 억
LG전자	46 억	유니테스트	-16 억
ISC	37 억	테라세미콘	-15 억
이오테크닉스	30 억	유진테크	-11 억
엔씨소프트	25 억	파트론	-10 억
게임빌	24 억	비츠로셀	-9 억
액토즈소프트	13 억	비야트론	-9 억
토비스	13 억	리노공업	-7 억
삼성전기	12 억	와이솔	-6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LG이노텍	79 억	NAVER	-314 억
SK C&C	44 억	삼성전자	-185 억
삼성테크윈	25 억	삼성SDI	-66 억
실리콘웍스	18 억	다음카카오	-60 억
골프존	15 억	이오테크닉스	-43 억
블루콤	14 억	LG디스플레이	-41 억
마이크로컨텍	13 억	SK하이닉스	-37 억
에스에프에이	12 억	KH바텍	-33 억
OCI머티리얼	11 억	삼성에스디에	-32 억
KG이니시스	10 억	LG전자	-21 억
일진디스플레이	9 억	엔씨소프트	-21 억
비츠로셀	9 억	NHN엔터	-18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974.11	-0.2%	-8.1%
DDR3 2Gb (Spot)	1.62 \$	-1.2%	-26.7%
NAND 64Gb (Spot)	2.64 \$	0.0%	9.1%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NAVER	4.3%	최근이슈

News & Issue

NAVER, 2분기 네이버페이, 서비스별 순차 적용, 쇼핑 최우선전망

네이버가 오는 25일 출시 예정인 자사 핵심 서비스 네이버 페이를 서비스별로 순차 적용하기로 함. 쇼핑과 송금 등 주요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정식 출시와 함께 시작하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현재 서비스 중인 일부 유료 서비스는 출시 이후에 차례대로 적용할 예정.

네이버 관계자는 15일 "현재 서비스 중인 유료서비스는 결제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네이버 페이의 적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우선 네이버는 원클릭 결제, 네이버 캐시, 마일리지 등 기존 서비스를 통합하고 새로운 송금 기능 등 추가한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페이를 오는 25일 정식 출시할 예정.

특히, 네이버가 새로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서비스가 쇼핑인 만큼 네이버페이와 함께 쇼핑 서비스는 차질없이 이용 가능. 네이버는 지난 2009년부터 가맹 쇼핑몰에서 별도 회원가입 없이 아이디 하나로 구매하게 도와주는 '체크아웃'을 서비스하고 있고 이미 1,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음.

체크아웃은 지난 3월 말 서비스 명칭을 네이버 페이로 우선 변경하고 가맹점 수도 올해 1월 4만개에서 현재 5만개까지 늘림. 이와 함께 모바일 결제 단계를 간편화하면서 4월 말 주간 모바일 결제 금액이 지난 1월 대비 1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또한, 이번에 네이버페이 출시하며 새롭게 추가한 송금 기능 역시 오는 25일부터 사용할 수 있음. 네이버는 이 서비스를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및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

한편, 오는 25일자로 네이버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과 네이버 마일리지 이용약관이 네이버페이 이용약관으로 통합되지만, 현재 서비스 중인 유료서비스 중 일부는 네이버페이의 적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네이버 N스토어 외 네이버 뮤직, N드라이브, 북스 등 네이버 캐시를 이용하는 서비스들의 결제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결정.

서비스별로 네이버페이 적용 전까지는 기존 사용하던 네이버 캐시, 네이버 마일리지로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일정은 야구9단과 아이템팩토리는 오는 7월 1일부터 네이버페이를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오는 2일부터는 뮤직, N드라이브, 포토인화 등에 적용되고 오는 7일부터는 뽀로로교실, 북스, N스토어, 웹툰스토어, 앱스토어 등도 네이버페이를 쓸 수 있음. 오는 8일에는 모바일메세지, 해피빈 서비스도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음.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는 네이버 쇼핑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다"며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이오테크닉	-17.5%	주가급락

News & Issue

이오테크닉스, 실적부진 전망에 과도한 기대감 우려

이오테크닉스의 올해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는 예상되나, 시장의 과도한 컨센서스는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 레이저 장비의 기존 장비 대체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장기적으로 반도체 및 IT 업계의 전반적인 레이저 장비 활용처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로 인해 이오테크닉스의 2015년 실적 역시 매출액 3,334억원(10% YoY), 영업이익 764억원(35% YoY)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1,150억원) 대비 하회할 전망.

2015년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1) 주력 장비인 레이저 마커의 수주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작년 레이저 마커 장비의 실적 증가 요인은 TSMC의 Apple AP 수주로 인한 Capa 투자 및 이로 인한 ASE, SPIL 등 관련 후공정 업체들의 Capa 투자 증가라고 판단됨.

하지만 2015년 기 확충된 Capa로 인해 대만 업체들의 작년 수준의 투자 증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 TSMC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Capex를 집행할 것으로 밝혔으나, 이는 20nm Capa 비중 증가 및 16nm FinFET 관련 개발 비용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언급. 반면 후공정 업체인 SPIL은 2015년 Capex 가이드를 US\$386m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

2)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신규 개발 장비들의 수주 증가에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Wafer Dicing 장비는 현재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 장비 수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후발 주자인 동사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

Annealing 장비는 현재 반도체 테크에션 기존의 RTP(Rapid Thermal Processing) 장비도 여전히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 침투에 시간이 다수 필요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삼성전자, 시안 3D 낸드플래시 공장 2단계 투자, 하반기 기대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3D 낸드플래시 공장의 2단계 증설 투자를 진행.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부터 국내외 협력사에 장비 구매 발주를 내고 있음. 증설 용량은 300mm 웨이퍼 투입 기준 2만장~2.5만장인 것으로 전해짐.

시안 1기 낸드플래시 공장의 크기는 월 10만장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절반인 월 5만장 안팎의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돼 있는 상태. 즉, 2단계 투자로 1기 공장 전체 공간의 70~75%를 채우게 되는 것. 이번 증설 투자는 올 하반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

3D 낸드플래시가 탑재된 삼성전자의 엔터프라이즈용 SSD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주요 서버 업체로부터 속속 품질 테스트 인증을 통과하고 있음. 삼성전자는 3D 낸드플래시를 넣은 PC용 SSD를 출시하는 등 관련 제품 출하 확대를 꾀하고 있음.

백지호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무는 "거래선의 품질 인증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엔터프라이즈 SSD는 물론 PC용 SSD 대부분에 3D 낸드플래시가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 이번 투자로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 삼성전자는 32단에서 적층 수를 늘린 3번째 버전의 3D 낸드플래시도 올 하반기부터 시안 공장에서 양산할 예정. 업계에서 추정하는 이 제품의 적층 수는 48단.

한편 삼성전자 중국 시안 3D 낸드플래시 공장의 투자 속도는 후방 장비 산업계의 기대 대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 시안 공장을 첫 가동하기 전인 작년 초만 해도 7만장 투자를 기대했으나, 이 수치는 5만장에 그침. 2단계 투자에서는 남은 공간이 모두 채워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반절 투자에 그침.

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고객사 품질 인증이 늦어지면서 3D로의 전환이 더디다"며 "14나노 평면형 낸드플래시 공정 개발에 착수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 시안 공장의 가동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전해짐. 아직 대형 거래선을 뚫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Micron	-3.5%	최근이슈

News & Issue

마이크론, 모건스탠리의 투자 의견 하향조정에 약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모건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비중축소'로 하향하면서 약세. 모건스탠리는 당초 마이크론의 3분기 이익이 호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이러한 계절적 호조가 4분기까지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투자 의견을 하향조정. 목표주가 또한 30달러에서 21달러로 하향 조정.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루멘스	-2.0%	최근이슈

News & Issue

국내 LED 칩·패키지, 글로벌 시장서 `약세`, 중국 업체는 30% 성장

국내 LED 패키지 업체가 글로벌 연간 성장률을 크게 밀들며 지속적인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반면 중국과 대만 업체는 성장률 두 자릿 수를 이어가며 국내 업체를 위협. IHS가 조사한 지난해 LED 패키지 매출액 순위에서 삼성전자와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루멘스가 각각 세계 3위와 5위, 6위, 10위를 기록.

삼성전자는 2년 전과 순위 변동은 없지만 연간 성장률 1%에 그침. 글로벌 LED 패키지 업계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 3%. 상승세를 유지했던 서울반도체는 2013년 4위에서 지난해 6위로 밀려남. 연간 성장률은 -6%. LG이노텍은 7위에서 5위로 올라섰지만 연간 성장률은 8%로 한 자릿수.

지난 2013년 중국 업체 처음으로 10대 패키지 제조사에 이름을 올렸던 MLS는 10위에서 9위로 올라섰고 연간 성장률은 30%로 10대 제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대만 에버라이트는 8위로 2년간 순위는 같았지만 16%의 성장률을 보임.

올해 LED 칩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 위세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 지난 4분기 LED 칩 생산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7.1%, LG이노텍은 6.2%의 점유율을 기록. 하지만 올 4분기가 되면 각각 5.4%, 4.5% 하락할 것으로 예상. 중국 사난은 6.6%에서 14.7%로, 화산세미텍은 3.8%에서 4.9% 높아질 것으로 예상.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칩과 패키지 생산 능력을 크게 높였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은 중국 업체들이 상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업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가격·기술 경쟁력에서 계속 뒤쳐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언급.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HTC	10.0%	최근이슈

에이수스, HTC 인수설 제기

15일 미국 지디넷이 로이터 등을 인용해 에이수스(ASUS)가 스마트폰 업체 HTC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이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에이수스의 조니 시 회장은 몇몇 대만 회사의 인수합병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특히 HTC 인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음. 에이수스 측은 이와 관련된 로이터의 질의에 대해 "(시) 회장의 발언은 내부적으로만 공유된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힘.

에이수스는 메인보드부터 PC,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 측면에서도 HTC 보다 훨씬 큼. 다만 HTC가 스마트폰 업계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고, 에이수스보다 앞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에이수스 측에 매력적.

미국 지디넷은 만일 두 업체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HTC가 보유한 증가형 시장 경쟁력이 에이수스가 보유한 저가-고가형 시장 경쟁력과 결합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6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1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16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